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바람과 모래의 목소리를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래하는 모래언덕(Поющий бархан) 방문기

손미나

«빠유쉬 바르한(Поющий Бархан, 노래하는 모래언덕)에 가지 않을래?» 카자흐스탄 친구가 물었다. «노래하는 뭐?» 나는 반문했다. 바르한(бархан)이라는 단어가 모래언덕을 의미한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그것이 노래하다니,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부터 참으로 생경했다. 일을 하며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교로는 한 발짝도 내디더보지 못한 나는 교통편부터 걱정했다. 친구는 단체 투어를 예약하면 여러 신청자가 함께 관광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란다. 사막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데다, 가장 골치 덩어리인 교통편이 간단히 해결되니,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의 손꼽는 자연 경관 명소들을 제치고 그렇게 나는 «노래하는 모래언덕»에 가게 되었다.

토요일 아침 7시, 우리는 알마티 시내 바이코누르역 근처로 집결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단체관광버스가 일렬로 늘어서서 저마다 자신들의 투어 상품을 내걸고 예약자들을 부르고 있었다.

«빠유쉬 바르한»은 길이 3km, 높이 150m에 달하는 초승달 모양의 모래언덕 혹은 사구로, 알마티주 알틴 에멜(Алтын Эмель) 국립 공원 내 위치한다. 목적지는 알마티 시내로부터 직선거리로 183km정도 떨어져 있지만, 캅차가이(Капчагай)

호수를 돌아가야 하므로 실제로는 비포장도로를 차량으로 303km, 4시간 30분가량을 달려야 한다.

나는 비상 상황을 방지하고자 아침부터 액체류를 일절 섭취하지 않았고 비상식량도 챙겼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중간에 카자흐스탄의 오프로드 휴게시설에 정차한 것이다. 간이 화장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사람 키만 한 깊이의 화덕벽에서 적적 꺼내어주는 고기 만두 썬싸(самса)와 빵 리뽀슈까(лепешка)였다. 빵은 그냥 먹어도 촉촉하고 구수했고, 썬싸는 고깃덩어리와 기름이 시골 인심만큼 들어있었다.



다른 한쪽에선 유목민의 나라답게 다양한 종류의 건조 유제품 스낵 쿠티트(курт)를 팔고 있었다. 쿠티트는 지역과 생산자마다 짠맛과 단맛의 비중이 각기 달라 취향 따라 살 수 있고, 입이 심심한 여행길을 달래주는 짹짹한 간식이다. 아마 유목민은 먼길을 이동하며 부패하지 않는 쿠티트로 나트륨과 열량을 보충했을 것이다. 목이 막히면 발효시킨 말 우유 크므스(Кумыс)나 낙타 우유 슈밋(Шыбат)으로 목을 축일 수 있는데,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이 생기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리 버스의 관광 가이드가 이를 한 병 사서 탔다가 버스 안 승객들에게 잔뜩 혼든 콜라처럼 터지니 제발 조심하여 열라는 원성을 들었다.



예상보다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빠유쉬 바르한»은 멀리서는 언뜻 자그만 모래 동산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크기가 실감 났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 작게 보여 줄지어 가는 재미때 같았다.

폭폭 꺼지는 모래를 딛으며 사구 위로 '등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는 날아오는 모래를 막아주는 유일한 보호구이지만 썩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발을 두 손에 들고 발가락 사이의 따뜻한 모래를 느끼는 것이 싫지 않았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니 꽤 높았고 숨은 턱까지 찼다. 사실 이쯤 나는 왜 이 곳이 노래를 한다는 건지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다. 사막의 햇빛은 4월 중순



일지라도 자비 없이 뜨거웠다. 나는 그대로 비탈면에 주저앉아버렸다. 다시 걸어 내려갈 힘이 없어 그냥 이대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나, 시도해 본 순간,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다».



친구들까지 합세하여 모래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낮은 음역의 깊고 울림이 큰 소리가 났다. 내가 느끼기에 뿔나팔 소리, 혹은 성대를 동시에 울려 고음과 초저음을 내는 유목민의 '허미'소리와 비슷했다. 이 소리의 원인은 바람이나 걷기 등에 의해서 모래 알갱이들이 움직이고 마찰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소련의 물리학자 V.Arabadzhi의 1962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양의 모래가 움직여 마찰할수록 삐걱거리는 소리에서 오르간 멜로디, 심지어 포효와 같은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나는 모래와 바람이 만들어낸 사막 위의 초승달, 사구를 본 것만으로 매우 즐거웠는데도, 우연한 계기로 마침내 듣게 된 모래언덕의 노래가 깊이 귓가 속에 남았다.

돌아오는 길은 지루했다.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던 관광버스는 사막열에 더위를 먹었는지 속력을 낼 수 없어 거북이처럼 걸었다.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 어느 지점에 정차했을 때, 누군가는 급한 불일을 보고, 버스는 열을 식혔으며, 나는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을 눈에 담았다.

그 후로도 며칠이나 쫓속, 머리카락, 옷, 배낭, 카메라 틈새, 집 안 구석구석에서 모래가 나와 고생했지만, «빠유쉬 바르한»에 다녀온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노래하는 모래언덕은 카자흐스탄의 수많은 자연의 선물 중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지만, 오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신비로운 장소임이 분명하다. 나는 허버트의 소설을 영화화한 «뉘(2021)»의 배경인 사막을 보며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함을 떠올렸다. 이 글이 카자흐스탄의 미(美)를 생생히 전달하여 궁금증이 들게 하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